

한국의 건축가 13 - 홍순인(1)

Korean Architect, Hong Soon-In

탄생배경 및 성장과정과 건축수업

최완호 / 건축사사무소 예소

by Choi Wan-Ho

나의 스승 홍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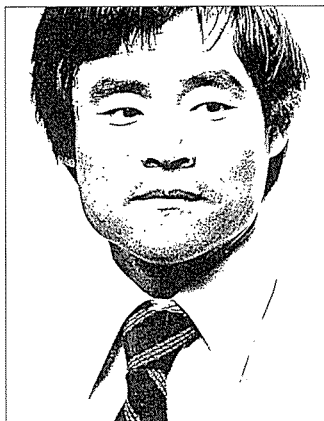
필자는 홍순인 선생을 1973년도에 만났다. 필자는 학교의 학생으로 그분은 설계를 지도해 주는 선생으로.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되었다. 하지만 홍순인 선생의 건축에 대한 열정과 업적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필자로서는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분의 짧은 생애를 무척이나 애석해 하기에 용기내어 그분의 삶을 기록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 기록되는 많은 내용은 그를 아는 많은 분과 특히 그분의 미망인인 김영숙 여사와 홍순인 선생과 고향에서부터 서울까지 자취생활을 같이 해 왔던 누구보다도 그분의 성장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그분의 동생 홍순복씨의 증언과 도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할 수 있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필자는 그분을 통해 건축을 알게 되었으며, 건축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설계하는 일이 힘들 때나 괴로울 때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한다. <필자 주>

◇ 연 재 목 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종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1. 김순하 (9802~9803)
12. 김인호 (9804~9806)
13. 홍순인 (9807~9809)

1. 탄생배경 및 성장과정과 건축수업
2. 사무소 개설과 건축 활동
3. 작품과 건축철학



탄생배경

건축가 홍순인은 1942년 11월 26일(호적상 1943년 2월 25일)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 지내동 614번지에서 아버지 홍종의씨와 어머니 지두류씨의 4남 2녀중 2남으로 출생하였다. 그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의 어머니는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홍순인이 태어나기 전에 위로 두 형제가 어린 시절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인 것과 홍순인을 임신하였

을 당시에 태몽을 꾸었는데 어머니의 조상 어른이 나타나 예사롭지 않은 자녀의 출생을 예고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지만 어머니의 산전조절이 좋지 않아서인지 홍순인은 출생하면서부터 오른손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하는 좌절을 겪게 된다.

어린 시절을 지내오면서 홍순인은 마음에 여러가지 상처를 받고 시련을 당하지만 좌절은 하지 않았다. 물론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부모로서의 미안한 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를 제멋대로 자라도록 키우지는 않았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그의 교육을 주로 하였으며 때로는 강하고 분명하게 키우려고 노력했다. 홍순인은 성격이 온순하였지만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면 혼자서도 여러 명을 상대해 싸우기도 하였고, 요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남에게 지기 싫어하였으며 한 번 시작한 일은 꼭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성장과정

그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동생 순복씨는 형의 고집과 끈기가 대단하였다고 하면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등교길에 학교를 눈앞에 두고 형은 조그만 돌부리에 채여 넘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곡괭이를 들고 그 돌부리를 파기 시작하더군요. 팔수록 점점 더 커지는 묵직한 돌을 끝내 옆의 고랑에 내던져 물어 버리고서는 학교를 다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모와 형제들의 약간의 과잉보호도 홍순인은 싫어했다. 어머니가 그의 가방을 동생 순복씨에게 들게 할 때는 싫은 내색을 강하게 나타낼 정도로 자립심도 강하였다.

또한 홍순인의 성장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하나의 사실은 바로 그가 안동이라는 예술성이 높은 문화적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사실과 그가 어머니의 예술성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이다. 그의 어머니 지두류씨는 삼베포로 유명한 "안동포"의 전문가였다. 나중에 "안동포"의 인간문화재가 된 사람이 처음에 홍순인의 어머니에게서 배웠을 정도였다.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어머니의 이러한 예술성을 많이 물려받은 홍순인은 고집과 끈기 외에도 바느질 그릇이나 나무통에 고무줄을 강약으로 감아 애국가와 아리랑을 연주하는 예술적인 소질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그는 수학여행이나 여행 때에 병산서원이나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등의 건축물을 보고는 무척이나 감동했다. 이렇게 고향 근처에 산재하여 있는 수많은 고건축의 아름다움이 그를 나중에 한국의 건축가로 발돋움하게 했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한국 전통을 이해하고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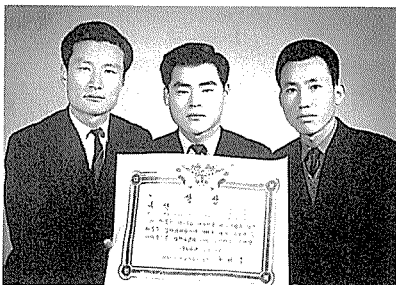
홍순인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한 번 좌절을 겪게 된다. 그가 안동의 명문 중학교인 안동중학교에 필기시험은 합격했으나 신체검사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안중학교 야간부가 신설되면서 아쉬운 대로 그곳으로 입학하게 되었으며 그후로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중학교를 남보란 듯이 수석으로 졸업했다. 홍순인은 중학교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주위의

선생들이 건의하여 시험도 보지 않고 특채로 경안고등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었으며 그는 노력함으로써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차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는 특유의 고집과 끈기의 에피소드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의 고향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려면 거리가 멀어 안동 시내로 나가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홍순인 역시 안동 시내에서 동생인 순복씨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으며 그는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 다루는 것을 즐겨 했다. 그 중에서도 기타는 자신의 핸드캡을 빼구가 커버해 주기 때문이었는지 더욱 좋아하고 갖고 싶어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시절에 부모님이 보내 준 쌀을 1년동안 아껴서 기타를 구입했는데, 기타를 사오는 날도 당시 안동에서는 좋은 기타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아침 일찍 대구까지 나가서 기타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 신나게 기타를 쳤다. 농사일로 바빴던 가족들은 집에서 음악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집에 와보니 홍순인이 기타를 흥겹게 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번 하겠다면 하고 마는 홍순인의 기질이 다시 한번 발휘된 순간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그는 그에게 잠재되어 있던 예술성을 대학으로 연결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던 홍순인은 자신을 훌륭하게 키우려는 부모님의 뜻과 본인도 당시에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선생님이 되보려는 생각으로 경북사대 영문과에 지원한다. 여기서 그는 다시 한 번 좌절을 겪게 되는데 1차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신체검사에는 불합격이 되고 만 것이다.

홍순인은 큰 충격을 받아 여러가지 갈등을 하게 되지만 끝까지 무엇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오기와 생각으로 당시에는 후기대학이었던 서울의 홍익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자신이 되고 싶었던 선생님의 꿈이 무산되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통과할 목적으로 홍대 법정대학 상경과를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고등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한 홍순인을 학교 교장 선생이 추천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학



제13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입선
(좌측부터 김남각, 홍순인, 박준실)



이윤형 설계사무소 시절



유럽여행중의 모습

한 홍대에서 홍순인과 건축과의 만남은 우연하게 이루어졌다. 1961년 정부의 대학정비령에 의해 홍익대는 미술대학만 남고, 모두 폐파되었다. 당시 그는 북아현동에서 그의 동생 순복씨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주위의 공업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때 T자를 들고 다니는 것을 관심있어 했으며 대학에서도 미술학부 학생들과 마주치며 청강도 하면서 건축미술학과에 대해 강한 동경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건축미술학과를 옮겨 온 것은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홍순인은 건축과 인연을 맺게 되었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다. 지금도 건축가에게는 스케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때는 더욱 필요로 했던 때라 그림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로서는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동생 순복씨는 그때의 형의 고민을 “나같은 촌놈이 건축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농촌에서 보던 것과는 맨 다른 것을 설계하게 되니... 친구들의 환경도 나오는 너무 차이가 나고...”라고 회고한다. 홍순인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생각으로 당시 기와집을 배경으로 만화를 그리던 만화가 김종례씨를 찾아가 사사를 요청하며 배움을 시작한다. 이후로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케치를 그려내게 되고 좋은 작품이나 건축주에게 급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생길 때면 어김없이 그의 스케치는 빛을 발하게 되었다.

대학시절 홍대 건축미술학과에는 정인국, 강명구, 나상기, 김수근 등 쟁쟁한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김수근씨는 일본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1960년 국회의사당 현상설계 당선을 계기로 국내에서 건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학생들에게 건축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가 있었으며, 홍순인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좋은 교수들 밑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특히 김수근씨의 왕성한 건축활동에 크게 매료된 그로서는 건축에 대한 열정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 시작했다.

1964년 대학 4학년이 되던 해에 홍순인은 김남각(강원대 교수), 박준실(강원은행)씨와 공동작업으로 대한민국 국전 건축부에 “한국민속문화회관”을 출품하여 특선에 입상했다. 형뻘되는 김남각씨와는 대학시절부터 잘 어울렸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었고, 후에 김남각씨는 홍순인에게 강원대 안에 몇 개의 작품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었다. 홍순인에게는 국전입상이 어느 정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설계사무소로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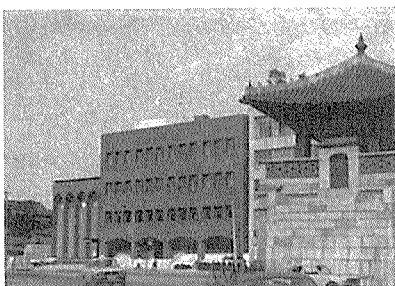
그를 아는 많은 동문들은 그가 대학시절을 상당히 열심히 보냈다고 한다. 후배 김홍식(명지대 교수)은 “내가 순인형을 알게 된 것은 정동훈(재미 건축가), 김남각(강원대 교수) 형들을 통해서이다. 당시 형들은 국전에서 특선이니 장관상이니 해서 다 차지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러한 형들이 학교 1등은 다른 형한테 뺏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터이다. 그 형은 바로 노력파 홍순인 형이었다.”라고 회상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는 1965년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건축생애를 시작하게 된다.

건축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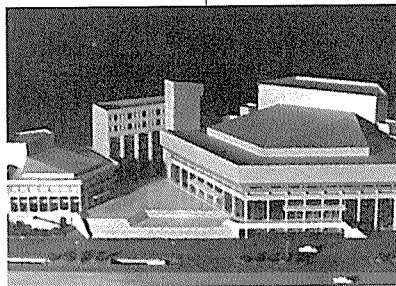
홍순인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설계사무소로 자신의 장래를 선택한 것은 대학시절 은사들의 영향과 대학 4학년 때의 국전에 특선으로 입상한 것이 큰 이유가 되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설계사무소를 시작하는 1974년까지의 10년 동안은 그에게 있어서는 건축가가 되기 위한 건축수업기간으로 볼 수 있다.

1) 배기형, 이윤형 설계사무소(1965년~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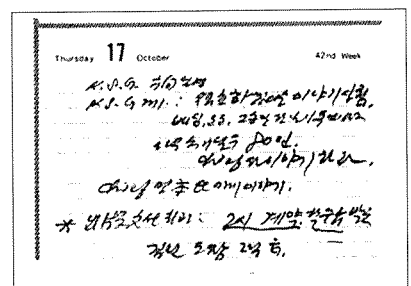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나간 설계사무소는 경성공전 출신의 배기형 사무소였다. 당시의 이 사무소는 비교적 큰 사무실로 홍순인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정인국 교수의 소개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배기형 사무소는 주로 구조에 관한 건물설계가 많았기 때문에 홍순인은 입사 한 달만에 그곳을 그만두고 남대문 그랜드호텔안에 있던 이윤형 사무소를 찾아갔다. 이윤형은 홍순인과 같은 해에 졸업했으나 입학 선배로서 학교 재학시절부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유능한 사람이었다. 홍순인은 대학시절에 이윤형의 중앙일보사옥 설계를 도왔던 인연도 있었고 이윤



출판문화회관



서울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
현상설계 가작 입선 작품 모형사진



1974년 10월 27일 김수근씨와의 대화 메모

형이 성품도 좋고 투시도에도 능한 사람이었기에 그 사무실로 들어갔던 것 같다. 이윤형 사무소에서 1년 이상을 대연각호텔 설계를 하면서 건축가가 되기 위한 입문과정을 겪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에게 강한 건축의 열정을 심어 주었던 김수근씨를 만나기 위해 김수근씨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선배인 김원석씨를 찾아가게 된다.

2)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1967년 ~ 1971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1966년 김수근 건축연구소를 병합한 것이었고 Total Engineering Consultant Form의 취지를 가지고 세운 회사였다. 홍순인이 1967년에 입사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오늘날 한국건축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건축의 꿈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다. 홍순인의 부서에는 김원석(Chief), 전동훈, 정종우, 이문옥, 김현석 등이 있었고 다른 부서에는 윤승중(Chief), 김 원, 오기수, 유 걸 등이 함께 있었다. 홍릉 KIST A.P.T 에 분주할 무렵 그의 후배이면서 나중에는 그의 설계사무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는 이상현은 홍순인과 첫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상현은 “저 보다는 3~4개월은 앞서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윤형 설계사무소에서 1년여 동안 건축수업을 하고 나와 부족하나마 틀이 잡혀 있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홍 선생의 특징은 손이 하나 부자연스러웠으나 모든 것에 대단히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무척이나 순진하셨습니다.” 라고 회상하고 있다.

그 당시를 홍순인 자신도 “졸업하고 5년간 김수근 교수에게서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받았지요, 학교 수업의 연장이었습시다. 김수근 교수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많았고 꿈을 키워던 시절이었습시다.”라고 1977년 11월 꾸밈지와의 대담에서 말하고 있다. 당시 김수근씨는 한국 건축가로서 건축의 실험적 시도를 하고 있었던 때라 홍순인은 이러한 김수근의 건축탐험을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건축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 도전과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홍순인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건축가의 꿈을 키웠고 건축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고 있었다. 홍순인은 이곳에 있는 동안 많은 협동작품을 하였는데 ‘홍릉 KIST APT(67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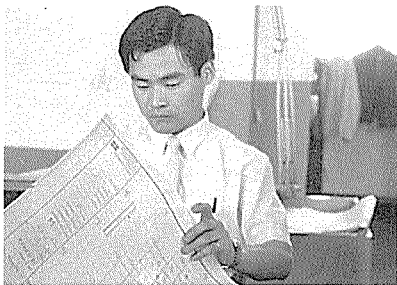
‘한국전력주식회사 본사사옥 현상설계(68년)’, ‘세운상가(68년)’, ‘타워호텔 해피홀(69년)’, ‘정남회관(69년)’, ‘남대문시장 종합설계(72년)’ 등이 바로 그러한 작품들이었다. 특히 홍릉 KIST APT의 입면스케치는 김수근씨의 많은 호감을 받았고, 정동 MBC 사옥의 입면스케치는 50여장의 안을 그려냄으로써 그의 끈기와 인내를 잘 보여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작품 중에서도 타워호텔 해피홀의 경우에는 형태와 구조적으로 가장 실험적이었던 것으로 십자형 Element를 반복 결합시킴으로 내부공간의 무한하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 예라 할 수 있다. “내부공간에서 모든 벽을 없애고 기둥과 유리만으로 공간을 한정하고 수직공간의 한정수단으로 격자량을 도입했다. 이 격자량은 십자형 기둥과 묘한 양상불을 이루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천정을 따로 하지 않고 재료의 과감한 표현 등으로 Air Supply, 기타 급배수 라인 등의 처리가 어렵게 되었고 큰 공간을 얻기에는 격자량이 무리였다.”라고 그가 설명하고 있듯이 건축의 실험적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을 통하여 건축가 홍순인은 건축의 자유로운 꿈과 철학을 심으면서 자신의 건축관을 형성시키 나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1968년 이후 김수근씨는 대형화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구조적 한계를 느껴서 인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를 떠나 인간환경연구소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홍순인은 1968년 이후부터는 이문조, 전상백씨와 함께 건축부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1968년 이후의 협동작품에는 홍순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여하였음을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3) 엄덕문 설계사무소(1972년 ~ 1973년)

홍순인에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김수근씨를 통해 건축의 꿈을 키웠고 그 꿈을 펼쳤던 장소였다. 그러나 이제는 김수근씨도 없고 건축의 꿈을 함께 키워왔던 많은 동료선배들도 없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분위기에서 건축을 계속 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학교선배 전동훈이 있는 엄덕문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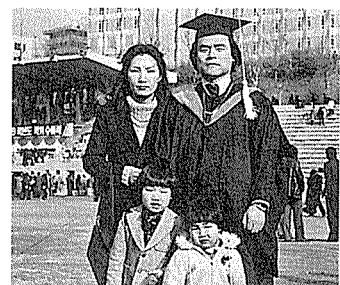
1) 1970. 9~10, 현대건축 19~26p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당시 모습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당시 직원과 함께



1979년 대학원 졸업식 때의 모습

소로 옮기게 되었다. 당시 엄 설계사무소에서는 여의도에 초대형 프로젝트인 '통일교 본부'를 설계하고 있었기에 사람을 필요로 했으므로 쉽게 옮길 수가 있었다.

이곳에서도 그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의 후배인 김인철은 "엄건축에서 홍순인 선배가 팀장으로 일하고 나는 보조로 참여한 리틀엔젤스 회관을 설계할 때였습니다. 홍 선배의 일에 대한 열정은 듣던 대로였습니다. 재단측에서 미리 준비한 미국측의 계획안도 있었고 엄덕문 선생의 기본적 구상도 있었지만 일이 시작되면서 홍 선배의 일에 대한 욕심, 파고드는 정열은 그 동안 보아온 다른 선배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건축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보았다고 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엄 설계사무소에서 '서울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 현상설계에 응모하였는데 홍순인도 별개의 안으로 같이 응모하게 된 것이었다.

당시 홍순인은 엄 설계사무소의 현상팀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건축가협회내에 있던 청년건축가 모임의 교류로 알고 지냈던 김 린(가전건축 소장)과 함께 쉽게 접할 수 없는 작품에 대한 욕심으로 독자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었다. 홍순인은 건축인의 양심상 회사를 다니면서 응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무소에 사의를 표명한 후 사무소에는 나가지 않은 채 오직 현상설계에만 몰두하였다. 사무소에서는 이것을 무례하게 받아 들였고 끝내 그는 이 일을 계기로 사무소를 떠나게 되지만 홍순인은 천성이 사람과의 마찰을 싫어한지라 "엄건축에 조금 늦게 들어올걸 그랬다"고 후회를 많이 했다.

4) 공간연구소와 결혼(1973년 ~ 1974년)

1973년 엄덕문 사무소를 나오게 된 홍순인은 다시 공간연구소로 들어간다. 당시 공간연구소에는 건축의 열정을 갖고 건축가의 꿈을 먹고사는 유능한 후배들이 새로 들어왔으며 '서울대 환경예술관', '서울대 본관', '신세계 예술관', 'EXPO

74', '건국대', '롯데호텔' 등과 같은 작품으로 분주했을 때였다. 1973년부터 공간연구소 대표였던 김수근씨는 건국대 확장으로 가게 되어 공간연구소 대표를 겸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때에 건축사자격(1970년)을 일찍 취득한 홍순인이 표면상 공간연구소를 대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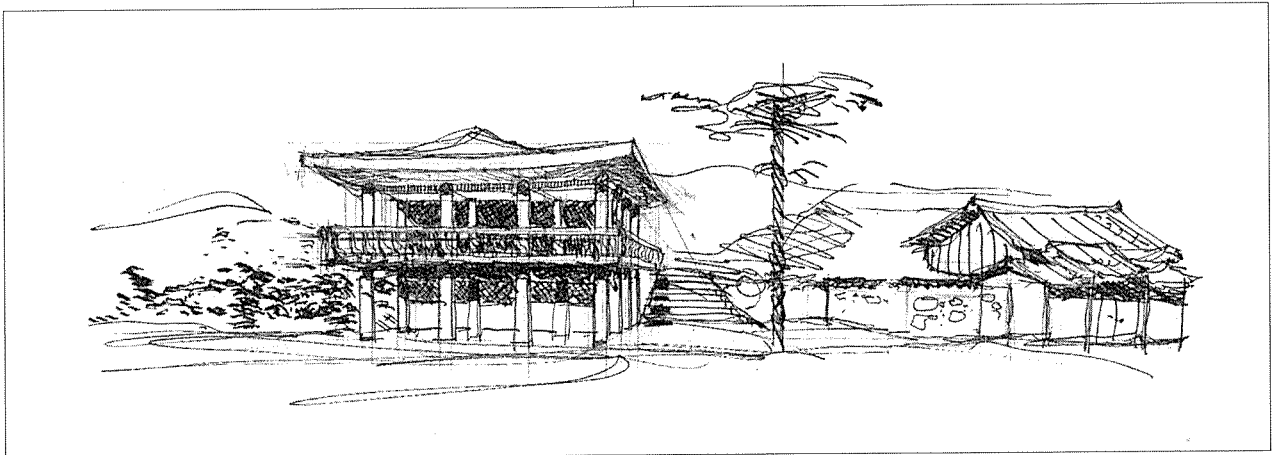
홍순인은 공간연구소에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은 1973년 5월 12일에 결혼하였다.

그는 한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장가 갈 수 있겠냐, 건축이고 뭐고 다 때려 치워야겠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건축이 싫어서가 아니라 설계사무소의 박봉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괴로워 한 것이었다.

미망인 김영숙 여사는 그 때 문화재관리국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공간연구소나 김수근씨의 명성도 익히 듣고 있었다. 김영숙 여사도 홍순인을 만나면서부터 건축을 깊이 알게 되었으며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결혼식의 주례는 그의 대학 은사였던 정인국 교수가 맡았는데 정인국 교수는 주례사에서 "신부는 신랑 홍순인만이 아니라 건축과도 함께 결혼하는 것이다."고 했을 정도로 홍순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었다. 결혼후 홍순인의 마음은 안정되어갔으며 건축적으로도 완숙함을 더 해 갔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반려자로서의 삶을 약속한 아내에게 늘 고마움을 갖고 있었다. 그의 동생에게도 "우식(장남) 엄마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라고 자주 얘기했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상을 원망하는 동생을 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건축을 하겠다."고 했으니 결혼후 그의 마음이 확실히 변한 셈이었다.

심리적 안정은 홍순인을 건축에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홍순인의 스케치

지역건축탐방 **6** - 대구 · 구미 · 김천(하)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Taegu · Kumi · Kimchon

지난호 상편에서는 보수성과 대륙성 기후의 대표적 도시인 대구의 도시 건축에 대한 지역성을 탐색해 보았다. 따라서 이번호 하편에서는 근대화 공업도시의 상징인 구미와 교통의 중심으로 옛날의 번성에 대한 향수를 간직한 김천을 중심으로 안동, 상주의 북부지역과 경산, 하양, 영천의 학원도시지역을 묶어 이들 도시들의 도시건축문화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지난호에서도 언급했듯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내륙권 도시들의 지역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구건축지 등을 통해 몇차례 논의된 바 있으며 그러한 자리는 지역건축인과 지역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테마기획 역시 지역성의 구현을 위한 주체는 누구보다 지역건축인 스스로의 과제로서 그 소재는 지역고유의 특성을 발견하고 찾아내어 현시점에 맞는 건축적 어휘, 재료적 취급과 함께 현대건축의 본질적 요소인 공간성, 장소성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실체를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 단순히 감상적, 감정적 논의가 아닌 하나의 논리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현시대의 보편화, 무개성화 추세에 주목하여 단순한 지역성만으로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 아닌 변증법적 관계로서의 세계화에 대한 기준도 동시에 탐구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성은 역사적, 문화적, 공간적 유산과 도시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성의 결과일 수 있지만 우리의 장단점을 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 적극적인 사고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생활패턴의 변화는 있겠으나 삶 그 자체의 정서는 크게 변하지 않을 듯 하므로 기존의 가치관을 장차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적용하는 지역성의 새로운 추구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 이정호 / 편집디렉터 >

<상>	영남 중부권의 지역성과 도시경관 / 김한배(대구대 조경학과 교수) 대구의 전통구조물과 역사적 환경들 / 예명해(대구대 건축공학과 교수) 대구건축의 지역성 탐구 / 권종욱(영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대구시민의식과 도시 / 하재명(경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_____
<하>	구미 도시탐색 / 김익환(금오공대 건축공학과 교수) 구미건축을 바라보면서 / 신현익(금오공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천 - 작은 도시의 매력 / 김종영(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_____ _____ _____
좌담: 영남 내륙권도시 - 보수, 근대, 공업의 이미지		_____
- 일시: 1998년 5월 13일 18:30~ - 장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세미나실		_____